

# 진주검무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

이정화\*

I. 서론  
II. 지역정체성의 개념  
III. 진주검무의 지역정체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11월 16일 경상대학교 주최로 아시아 춤 문화 국제 학술대회가 진주에서 개최되어 각 국 학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들 중 하와이 마노아대학 무용대학 명예교수 주디 반 자일 본인은 “과거 진주검무의 전통성과 예술성에 반해 배운 적이 있으며,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며 진주검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이 그녀를 감동하게 했을까? 진주검무를 배우고 있는 나에게는 언뜻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 정작 쉽게 가까이 접하면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말과 진주검무가 지닌 한국 전통춤의 특징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란 단어는 각 분야에서 유행처럼 널리 사용되며, 국가 상호간의 정치, 경제적 뿐 아니라 문화의 세계화로 확산되었다. 정치, 경제적

\* 진주경상대학교 강사, dance6410@hanmail.net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미디어문화,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문화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이에 문화의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선도하며 세계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반면, 오늘날 세계화 시장 구조 속에서 각국의 다양한 문화정체성은 심각하게 상실되고 미국과 같은 경제 강대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문화 동질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문화, 특히 지역 문화정체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

정체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한 마디로 타자와의 구별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세계화, 지방화라는 흐름속에서 지역 경쟁력이 삶의 질, 환경, 그리고 고유한 전통 문화역사 등에 새롭게 조명되는 상황이다.

진주 지역의 지역성은 한마디로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다. 남강 유적의 발굴로 이 지역은 수만 년 전 구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온 국내 최대의 유적지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주는 천 년 고도의 역사를 간직한 충절과 교육, 문화, 예술의 고장이다. 축석루 밑 남강 가에 논개가 왜장을 껴안고 순국한 바위인 의암이 있고, 의암별제를 통해 의기의 호국충절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일 년에 큰 문화 예술 행사만 해도 진주 논개제, 진주 탈춤 한마당, 남강유등 축제, 개천예술제가 있으며,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중요 문화재 등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진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로 지정받은 진주검무와 경남남도 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굿거리, 12호 진주포구락 그리고 제3호 진주한량무의 춤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진주검무와 진주포구락을 제외한 진주한량무, 진주교방굿거리는 전승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진주 관기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의암별제의 맥을 진주 기생들이 만든 “의기창렬회”를 통해 부활되고 복원하여 사대부의 행사성 제가 아니라 기생들의 제사였음은 진주 기생의 정신이며 진주여성성과 진주 정신을 대변하는 지역적 정체성의 발로인 것이다. 진주기생 만큼 애국비사를 남긴 기생은 없다. 그러므로 진주는 의기의 본가라고 할 수 있다. 진주의기는 우리 역사에 우국비사를 남길 만큼 유명하다. 이곳에서 논개가 죽었고, 산홍이 태어났다, 수백 년을 이어 온 진주기방사는 곧 '의로운 기녀사'의 대명사가 되며, 기녀들에 의해 현무하고 전승되어온 검무는 지역적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 춤으로 진주의 충의를 표현하여 전승되고 있는 춤이다.

진주는 지역 고유성에 기반을 둔 전통 문화역사의 지역이며, 독특한 춤의 영역 지역이다. 그러므로 진주정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역사적 사실 의암별제의 정신과 검무 정신, 춤성을 유추해보며, 검무의 특징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 고유성과 특수성을 지닌 지역정체성에 내재된 정신과 춤의 특징 조사는 첫째, 진주는 예인의 고장, 춤의 지역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상징성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춤을 통한 동질성, 소속감,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전통춤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 전통춤 특징에 대한 이해와 지역 춤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진주검무 및 지역춤의 올바른 전승 맥락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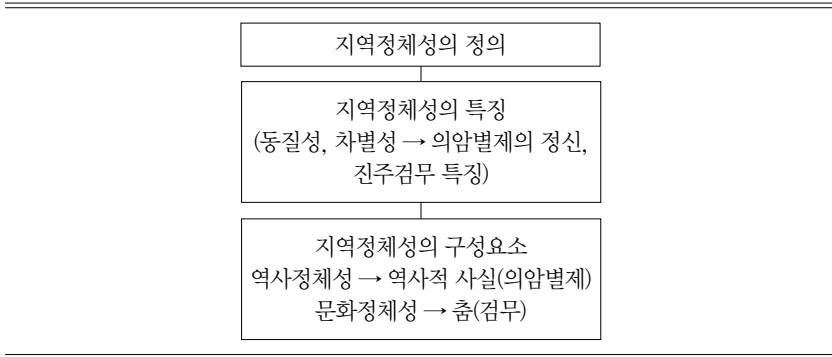
지역은 지리학이란 학문 개념으로 한 지역의 지리적 공간과 커뮤니티 (community)개념의 결합이며,<sup>1)</sup> 정체성은 민족, 나라, 지역이 가지는 그 문화권만의 고유한 자질이다. 지역정체성 연구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속성, 동질성, 공유, 소속감, 공동체, 친근감 그리고 독특한 고유의 독특함, 독자성, 고유성의 특징들을 감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영역을 조사해야 하나 이 논문에서는 지역정체성의 특징 중 동질성과 차별성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지역정체성 요소는 보통 역사정체성, 경관정체성, 문화정체성, 산업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개념 및 분류법이 다르므로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을 역사정체성의 의암별제라는 역사적 사실과 문화정체성의 춤으로 검무의 특징적 요소를 조사 한다. 의암별제의 역사적 사실에서 현무로 추워지는 검무에서 타 지역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조사하고 검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자연 등의 환경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

1) 이경현(2012), 완도군 보길도의 지역정체성형성과정과 특성, 전남대학교학위논문, p. 15.

〈표 1〉 연구의 틀



진주검무도 변화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전승·보존되고 있다.

예로 진주는 교방이 많고, 문화예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공연물의 종류로는 육화대, 연하대, 현선도, 고무, 포구락, 검무, 선악 향장무, 의암별제가무, 아박무, 향발무, 처용가무, 승무, 황당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많은 춤이 있지만 지역 정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의 의암별제와 문화정체성으로 검무의 특징을 조사하여 동질성과 차별성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현재 진주검무 보존회 전수자로서 검무를 배우고 있어 실기체득을 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진주검무의 정신과 특징을 유추하고자 한다.

## II. 지역정체성의 개념

### 1. 지역정체성의 정의

정체성(identity)이라는 말은 정신분석학, 정신의학, 심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심리학, 인문지리학, 건축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Windholz와 Wheelwright가 임상적 목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개인으로서의 동일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자아 정

체성의 상실을 표현하는데서 시작하였다.<sup>2)</sup>

라틴어로 동일하다는 뜻인 ‘identitas’, ‘identicus’에서 유래한 정체성(identity)이라는 말은 1950년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Erikson에 의하여 개념화되었는데,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에 틀림없는 본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sup>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항상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사회적 접촉과 관계 속에서 비로소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은 정체성의 용어는 개념상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역(region)은 ‘(a)지구상에 있는 표면 중 쉽게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구역(area)나 부분(zone); (b)세계를 뒤덮는 지역시스템의 일부; (c)기후지역이나 경제지역 같은 지구상의 어느 특징의 일부’로 정의된다.<sup>4)</sup> 산맥이나 구릉·하천 유역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의하여 구분되는 자연적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행정적 영역이나 역사적 영역, 동일한 방언이나 민속, 경제지역 등으로 된 인문적 지역으로 구별될 수 있다.

‘지역’의 구분 또한 상대적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한 지역과 타 지역의 존재 의미는 각 지역 내 각기 동질성 혹은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각 차별성은 각 지역의 특성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특성화된 각 지역은 상호 간에 서로의 다름이 확인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역과 정체성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다시 정의 해 보면 정체성이란 바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문화권에만 있는 고유한 자질이 있으며, 다른 지역, 나라, 문화권에 그 자질이 있더라도 그 지역, 나라, 문화권에 유별나게 강한 자질이 있으니 그 자질을 그 지역, 나라, 문화권의 정체성이라 한다.

지역정체성은 한 지역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 즉 동질성이며, 그 지역주민이라는 집단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집단 경계가 지속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고유한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석환(2001), 부산의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회, p. 508.

3)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p. 11-12.

4) 이경현(2012), p. 7.

## 2. 지역정체성의 동질성과 차별성

지역은 사람과 같이 그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며,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인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계기석 외(2001)는 지역정체성을 크게 동질성과 차별성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보았다. 동질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특징)은 변함이 없는 연속성과 함께 지역에 대한 일체감과 귀속감을 나타내는 동질화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별성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성 또는 개별성과 함께, 고유성을 의미하는 우월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rikson(1968)은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개념상의 함축성으로 인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그 내부에 있는 지속적 동일성과 몇 가지 속성을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정체성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거듭하게 됨으로 생각이나 행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기는 언제나 과거의 자기와 같고 내일이나 미래의 자기와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점차 그 동일성을 굳히게 된다는 것이다.<sup>5)</sup>

계기석(2001), 이석환(2001)에 의하면, 정체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동질성과 차별성을 가진다. 정체성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체성의 특징인 동질성은 ‘지역은 그 지역답다’라는 개념이고 변화에 대한 연속성(continuity)과 동질화(identification)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연속성이고, ‘그 지역과 관련되는 나는 그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지거나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

5) 김주원(2003), 지방자치단체 정체성 확립방안, -원주 생명문화·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p. 211.

〈표 2〉 지역정체성의 특징

구 분		주요내용
동질성	연속성	한 지역이 그 지역답다는 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인가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동일화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혹은 시민으로서의 집단은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또는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시민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차별성	특이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수월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면서 무언가 뛰어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는 다른 지역에도 있는 공동요소(예: 도로)를 비교해 볼 때 더 낮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고유한 요소가 있되, 질적으로 양호하다.

주위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지는 것은 동질화라고 할 수 있다. 연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질성은 지역이 시간의 누적으로 인한 역사적 의미와 공간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하나의 존재이므로 이는 또한 연속성의 속성과도 분리할 수 없다. 지역 자체의 개별적 존재가치보다는 주변의 환경적 맥락인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로써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의미가 복합적이며 또한 시간을 가지고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별성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고 더 낫다’ 라는 개념으로서 특이성과 우월성으로 세분된다. 특이성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는 것을 의미하고 우월성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무언가 뛰어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 즉 지역 내적 시각에서는 지역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 외적시각에서는 지역의 차별성 내지 개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정체성은 특정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 자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관 등과 같은 요소가 다른 지역의 이것들과 차별화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 이미지와 경관 또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sup>6)</sup>

6) 이경현(2012), p. 10.

### III. 진주검무의 지역정체성

#### 1. 의암<sup>7)</sup>별제 현무

진주 교방 관기인 논개의 호국정신은 진주정신으로 전승되며, 의암별제의 현무로 진주검무가 추위지는 것은 진주정신과 춤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암별제는 의열명기(義烈名妓) 논개(論介)를 추모하는 가무제로서 진주의 대표적인 전통제의 행사로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래되고 있다.

경종(景宗) 2년(1722)에 조정에서는 논개의 순정을 크게 찬양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에 따른 모든 명칭에 '의(義) 자(字)를 하사하여 위암(危巖)을 의암(義巖)이라 부르고, 암벽에 정대룡(鄭大隆)을 시켜 '의암(義巖)이라 크게 글자를 새기게 하고, 강 위 석벽에도 '일대장강천추의열(一大長江千秋義烈)'이라는 여덟 자를 새기고, 논개를 의기라 하여 논개사(論介祠)를 '의기사(義妓祠)'<sup>8)</sup>라 이름 지어서 강 위 언덕에 세우고 비(碑)를 세워 나라에서 제사(祭祀)를 지냈다.<sup>9)</sup>

1868년부터 매년 지내오던 의암별제는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매년 6월 29일 축석루에서 순의제(殉義祭)와 합동으로 봉행해왔다. 1988년 순의단(殉義壇)이 건립되자 논개제는 음력 7월 7일 축석루에서 따로 봉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의암별제는 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암별제를 처음 창안한 진주목사 정현석이 쓴 『교방가요』가 발견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 최초의 보유자인 진주교방 출신의 고(故) 최순이<sup>10)</sup>

---

7) 의암(義巖): 진주시 본성동(本城洞) 轟石口) 아래 강 가운데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위암(危巖)이라 불리던 이 바위는 윗면이 평평하고 넓이가 3.65m×3.3m 정도이다.

8) 의기사(義妓祠): 진주시 본성동 남강 벼랑 위 축석루 서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칸짜리 조사우(祠宇)이다. 문화재자료 7호 사묘재실이다.

9) 성계옥(2006), 『의암별제지』 보고서, p. 34.

10) 최순이(崔順伊, 1884~1969)할머니는 8세부터 가무를 배웠으며, 13세 때 중앙의 진연도감(進宴都監)에 선발되어 장악원에서 가무를 학습한 후 고종 14년(1904)부터 1910년까지 궁중무희를 지냈다.



할머니의 구전을 기초자료로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의암별제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는 일제의 문화말살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진주권변 기생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논개의 호국정신이 의암별제로 진주정신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계사년(癸巳年) 진주성 함락시 관기 논개가 왜장을 안고 남강에 빠져 순국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구전 뿐 아니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사료(史料)가 남아있다.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sup>11)</sup>이다.

둘째,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전자(篆字)로 새겨진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이다. 이와 같이 논개의 순국사실은 진주 사람들의 목격담이 구전되었고, 유몽인의 『어우야담』과 전자각 “의암” 으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지역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의미 있는 역사적 정신을 과거부터 현재로 만들어 가는 지역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진주 지역의 정체성을 진주검무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역사적정체성요소인 역사적 사실 의암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왜장과 남강에 투신했던 논개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제례의식과 종합적인 가무제로서 조선말 진주에서 창제된 의암별제가 있다. 일제의 식민지 문화말살로 사라졌지만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이하는 1992년에 다시 복원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의암별제의 복원으로 진주출신 노기들의 모임 의기창렬회는 논개제의 정통성을 의암별제에 물려주었다. 진주에서는 논개를 기리는 논개제는 물론 여러 애국 행사에는 반드시 진주검무를 헌무로 올려왔다. 그러므로 헌무로 추워지는 검무는 진주지역 역사적 정신이 기초가 되어 표현되는 진주의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이념형인 진주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주정신은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표상으로서 어떤 현상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주검무는 진주정신과 접합하면서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11) “論介者晉州官妓也當萬口癸巳之歲金千日倡義之師入據普州以抗倭及城陷軍散人民俱死論介擬裝服立于臺石口下巖之巖其下萬丈直入波心群倭見而悅之皆莫敢近獨一將然直進介笑而迎之(倭將誘而引之論介遂抱持基倭投于潭俱死)”(하락)

## 2. 지역정체성에서 본 진주검무의 특징

### 1) 진주검무의 특징

지역정체성으로 본 진주검무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진주검무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주검무 최초의 보유자 최순이는 조선말 진주 교방청의 기생으로 9세 때부터 검무를 추었고 궁중에 들어가 어전에서 연희하였다고 한다. 최순이는 논개의 제향을 할 때도 검무를 추었다고 한다.

이에 진주검무는 한국 전통춤 정재무로 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주의 권변과 기생조합에서도 춘 기록과 증언을 볼 수 있다. 진주검무에서 정재무의 특징은 주로 춤의 형식미(악, 무구, 복식, 대열, 동작의 구성)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악은 궁중음악인 3현6각으로 집박악사를 중심으로 춤이 진행된다. 악사들은 무대 위에서 무용수와 한 무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둘째, 무구인 칼은 다른 지역의 검무와는 달리 목이 꺾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걸로 궁중에서 사용한 칼과 일치한다. 한삼은 특히 왕 앞에서 춤을 출 때 맨손을 보이지 않는다는 예절이다. 그러나 한삼의 색깔 배열은 정재무에 사용한 한삼이 진주 교방에서 변화하여 진주 검무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복식은 궁중에서 입던 남색치마, 옥색삼회저고리 위에 남색 전복을 입고 홍색 전대를 맨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의 복장을 흉내 내어 입었지만 정재무와 비슷하다. 넷째, 대열은 일무대열 사방, 오방, 원형 등의 짜인 틀을 가지고 작품의 형태가 규격화 된다. 춤의 구성은 대부분 종대나 횡대에서 시작하여 종대나 횡대에서 끝나기 전에 연풍대 춤사위로 회무를 한다. 이때 회무의 교차와 순환 역시 형식의 통일미와 정제된 균형미를 보여준다. 다섯째, 동작들의 구성에도 같은 동작의 반복 구성과 엄격한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형식미를 살펴보면 진주검무는 정재무의 특징적 요소를 온전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적인 형식은 정재에 가깝게 보이나 춤사위 동작 하나하나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은근한 속밧을 내는 호흡법은 민속 교방춤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중 특징적인 춤사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검무의 춤사위는 세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한삼을 끼고 추는 한삼사위. 둘째

〈표 3〉 진주검무 형식미의 특징

요 소	정재무와 민속춤의 특징	비 고
반주 음악	장고 1, 북 1, 향피리 1, 대금 1, 해금 1의 삼현육각(三絃六角)의 편성	정재무의 전승
무복	남색 치마, 옥색 삼회장저고리 위에 남색 전복을 걸치고 가슴에 홍 전대를 맨다.	정재무의 전승
한삼	한삼의 색깔 배열은 정재무에 사용한 한삼이 진주의 교방에서 변화하였다.	진주검무만의 특색
무구	목이 부러지지 않은 칼이다.	정재무의 전승
진행순서	악사가 칼을 먼저 무대에 두고 나간 뒤 무희들이 다시 나와서 춤을 추지만, 지금의 진주검무는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자리에 둔 다음 춤을 시작한다.	정재무의 변형
대형	종대나 횡대로 시작하여 횡대나 종대로 변화하며 끝나기 전에는 회무를 하는 대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재무의 전승
인원	궁중에서는 4명의 무희가 등장하나,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8명이 등장한다.	정재무의 변형

한삼을 정숙히 던진 후 맨손으로 추는 맨손사위, 그리고 칼을 들고 추는 칼사위이다.

첫째, 한삼사위 중 평사위와 배맞추기는 낮은 염불장단에 맞추어 움직이는 발의 디딤새나 호흡은 장엄한 절제미를 보여준다. 반면 뿌릴사위와 결삼사위는 장엄한 동작 중에서도 한삼을 뿌려 역동적인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숙인 사위는 정갈한 긴 호흡법의 절제된 미와 양손으로 함께 아래위로 한삼을 뿌리는 움직임은 절제와 역동미가 함께 보여준다.

둘째, 맨손사위에서 깎지떼기는 손목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독특한 동작이다. 하체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지기(地氣)를 눌러 올리듯 무겁게 움직이는 동작이다. 또한 자락사위는 입은 쾌자 자락을 잡고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듯 깊은 호흡으로 몸을 높이고 들고를 반복하되 무거운 느낌과 쾌자 자락의 청색과 홍색의 조화로 화려함과 생동감을 넘치게 보이는 동작이다.

셋째, 방석돌이는 다섯 손가락을 모은 양손을 튕기며 몸의 균형성과 유연성이 보여 지는 동작으로 정체미와 형태미가 돋보이는 동작이다.

넷째, 칼사위에는 위엄사위가 가장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짐과 용기를 보여 주듯 힘을 과시하고 적에게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느낌으로 추는 동작이다. 그리고 쌍칼사위는 엮치고, 제치고, 감고, 돌

리기 결국 한국춤의 특징인 어르고 뿌리고 맺고 어르는 팔 동작이 보여 진다.

다섯째, 연풍대는 지금은 겨드랑사위를 생략하고 있으나, 다른 춤에서 보여 지는 동작과는 다른 독특한 움직임으로 원이 꽃이 피었다 졌다하는 형상을 보여주듯 몸의 움직임을 정중히 하여 안과 밖으로 원으로 돌아간다.

여섯째, 마지막 인사사위는 걸음걸이와 박자의 호흡이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움직인다.<sup>12)</sup>

진주검무의 전체 춤사위는 한국 전통춤의 특징인 정중동의 융합인 내적 아름다움과 화려한 듯 정갈한, 정제된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진다. 정제의 내면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절제미는 춤 동작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정중하며 우아하기까지 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민속 교방춤의 특징인 자연스러움과 은근한 속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 2) 지역정체성으로 본 진주검무의 특징

위의 진주검무 특징을 참고로 지역 정체성으로 본 진주검무의 특징을 타지역 검무의 특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검무의 종류는 진주검무, 통영검무, 호남검무, 경기검무, 궁중검무, 해주검무, 평양검무 등이며 각 검무는 각 지역의 종목별 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검무 중 통영 검무와 진주검무의 동질성으로 통영검무 또한 춤무공을 기리는 행사 때에 헌무로 추게 되는 춤으로 충절을 이어받은 정신을 표현하는 춤인 것이다. 진주검무와 통영검무의 정신은 호국정신의 발로이며, 지역적 정신이 춤으로 이어진다.

각 검무의 형식에서 지역적 동질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무구인 칼은 현존하고 있는 통영검무, 호남검무, 경기검무, 해주검무, 평양검무 모두 칼목이 꺾여 돌아가는 칼의 형태이나, 궁중검무와 진주검무만이 칼 목이 꺾이지 않는 칼의 형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 칼의 재질은 백동재질, 철재질, 놋쇠재질, 나무재질로 분류된다. 진주검무도 처음 무형문화재로 지정 당시는 목이 꺾인 것을 사용했으나 원

12) 성계옥·차옥수, 사진 임원순, (2002)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 화산문화, p.118-154.

보유자인 이윤례와 김자진의 증언에 의해 원형을 복원하여 목이 꺾이지 않은 칼을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 한삼을 끼고 추는 춤은 정재무이거나 정재무에서 전해진 춤이다. 한삼을 끼고 한삼 춤을 추는 검무는 진주검무와 통영검무, 호남검무이다. 한삼은 일곱가지 색동으로 만들었지만 진주검무의 한삼은 색깔 배합이 다른 것으로 보아 정재무가 지방화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한삼 또한 지역적 특색으로 자리 매김한 것 중의 하나이다. 셋째, 복식은 각 지역 검무는 전립, 치마, 쾌자, 전대를 착용한다. 이것은 궁중검무의 복식과 동일한 것이나, 지역의 특색에 따라 색상이 다르다. 전립에는 고중에 의해 공작털과 화살촉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반주음악은 진주검무, 통영검무, 호남검무는 염불장단, 타령장단, 자진타령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한삼춤이 있다. 한삼춤이 없이 손춤만 추는 지역 검무는 타령장단, 자진타령장단이 중심 구성이다. 진주검무 음악은 현재 경기삼현육각의 선율로 되어 있으나, 예전에 음악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김수악의 구음에 맞추어 추기도 하여 특색적인 음악반주이기도 했다. 각 검무의 선율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진주검무는 남부지역 검무 즉 통영검무와 같이 한삼춤, 손춤, 칼춤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춤사위마다 지역적 특징이 나타나 있다.

각 검무의 손춤사위에서 손목을 꺾는 사위가 대표적인 춤사위이나, 특히 진주지역의 손목사위는 진주지역 모든 춤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타 지역과 달리 손목을 꺾을 때는 손목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 아래 전체를 돌려서 손목을 꺾는 방식이다. 손목사위의 주 춤사위는 깎지떼기, 방석돌이이다. 칼을 어르는 어름사위와 쾌자자락을 잡고 추는 자락사위는 다른 검무에서는 볼 수 없는 진주검무만의 독특한 춤사위로 어름사위는 칼을 들고 어깨와 함께 어깨춤이 들어가며, 자락을 잡고 어루어 여성성을 표현한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

## V. 결 론

지역정체성을 규정짓는 많은 특징 중 동질성과 차별성을 정체성의 구성요소인 역사적 사실과 춤에서 살펴보았다.

의암별제는 논개의 의렬정신을 높이 추모하면서 후세에 논개의 정신을 길이 간직하고 전승하고 싶은 일념이 담긴 진주지역민의 동질성과 공동체의식이 담긴 전통 제례이다.

그런 진주의 의암별제의 정신과 가무는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교방이 문을 닫은 뒤에도 진주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196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1930년대에는 진주를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예술의 지역으로 만들었다.

의암별제에 헌무로 바쳐지는 검무에는 논개의 정신을 기조로 형식미와 내용미 등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춤의 특징은 첫째, 한삼을 끼고 추는 사위이다. 둘째, 손놀림이 돋보이는 손목사위이다. 셋째, 쾌자를 잡고 추는 쾌자 어름사위이다. 춤은 활발한 기상이 돋보이며 웅장하고 외형적인 대범성을 보여주는 남성성과 은근한 속멋의 절제의 호흡법인 여성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주검무는 한국 전통춤의 정재무와 민속무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역 문화정체성 중 진주의 춤은 그 지역의 과거 역사적으로 이어온 춤과 현재의 춤이 일정한 흐름으로 존재했을 때, 그 가치가 춤 정신으로 드러나며, 춤 정체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진주 춤의 특징을 드러내는 일은 춤의 정체성의 기초 작업이며, 진주춤의 특성 뿐 아니라 우리 전통춤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작게는 지역적 정체성의 담론과 크게는 민족적 정체성의 담론하에서 재창출된 전통문화로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진주 뿐 아니라 지역 춤에 대한 관심과 심도 있는 연구는 한국 전통춤의 보편적 특징과 지역 춤 정체성 그리고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연구이며, 각 지역의 춤 전래·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말복(2005). 『우리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은경(1982). 『한국민속무용연구』.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www.kci.go.kr

- 勝田伊助(1940). 『晋州大觀』. 동경.
- 임수정(2011). 『한국의 교방검무』. 민속원.
- 정병호(1985). 『한국전통예술의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성계옥 · 차옥수 / 사진 임원순(2002).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검무.
- 성경린(1976). 『한국의무용』. 교양국사총서 24. 세종대황기념사업회.
- 김한배(1994). 한국도시경관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경관과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9.
- 이경현(2012). 완도군 보길도의 지역정체성형성과정과 특성. 전남대학교학위논문. 715.
- 이지우(2007). 문화산업 예술로서의 한국 전통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1996). 『경남향토무용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 김주원(2003). 지방자치단체 정체성 확립방안. -원주 생명문화 ·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 계기석 외(2001). 도시정체성과 도시발전, 도시정보. 229(1): 3-15.
- 이석환(2001). 부산의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회. 508: 503-529.
-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 성계옥(2006). 『의암별제지』 보고서. 34.
- Eriks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13일
심사일	10월 21일
심사완료일	10월 26일

## Abstract

### The Local Identity of Jin Ju Sword-dance

Lee Jeong Haw  
*Lecturer of Da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historical fact and dance homogeneity and differentiation, one of the characters which defines local identity, has been looked at.

Although the definition of local identity can be differently expressed depending on how you see, it can be said local identity's definition is 'sustainable homogeneity' which differentiates a local from another.

Uiambyuljae is a traditional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expressing Jinju local people's homogeneity and community spirit, and it is to commemorate and pass down Nongae's spirit.

jinju-sword-dance of Uiambyuljae shows special aesthetic trait which is different form other local dance in terms of the beauty of form.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is the motion holding Hansam.

Wrist motion and Chaeja motion is shown specially and another trait is that the dance has masculinity and femininity.

Jinju-sword-dance has traditional Korean dance's royaldance and folkdance.

Hence, when we studies Jinju-sword-dance our traditional dance trait would be able to find out at the same time tradition korea dance.

This work will have a meaning as a re-created culture under the from local identity discourse to nation identity discourse.

However, although Jinju-sword-dance has long tradition and history,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es about the character of the dance.

It is essentially necessary to research and interest about local dance for keeping nation identity. Therefore, this kind of study will be an important role to commemorate and hand down each local dance.

**keywords:** local identity(지역 정체성), sword-dance(검무), uiambyuljae(의암별제), different(특징), spirit of local(지역정신)

www.kci.go.kr